

## 남자 대학생의 도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스포츠토토를 중심으로 -

최정현<sup>1</sup>, 양영미<sup>2\*</sup>, 김성의<sup>3</sup>

<sup>1</sup>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2</sup>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3</sup>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Qualitative Research on Gambling Experience of Mal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Sports Toto-

Jung-Hyun Choi<sup>1</sup>, Young-Mi Yang<sup>2\*</sup>, Seong-Ui Kim<sup>3</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seok University

<sup>3</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ek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대학생들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남자 대학생 도박중독의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연구의 참여자들은 8명의 남자 대학생으로 심층 인터뷰 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험의 범주는 4개로 **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회한으로 흐르는 눈물, 수면 아래로 잠긴 삶, 꿈을 꾸는 날엔** 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토토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흥미 유발적인 요소가 많지만, 일반 도박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도박 기간이 짧은 대학생이 경제적 자금 조달의 한계점으로 현실을 자각할 경우 도박중독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격리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도박, 중독, 스포츠토토, 남자,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male college students through sport toto gambl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prevention program for male college gambling addict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eight male college students who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four categories of experiences were derived as follows: **Like the wind that rushes to the sea, Tears of remorse, A locked down life and On a dream day.** Research shows that sports toto is easy to access and has a lot of interesting factors, however it has been found out that male college students have a great risk of falling into addiction aiming to win at once like ordinary gambl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ambling preventive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necessary for male college students who like sports.

**Key Words** : Gambling, Addiction, Sports-toto, Male, College stud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R1D1A1B03028538)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Yang (debora69@bu.ac.kr)

Received January 21, 2019

Revised February 12,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7.2%로, 이는 호주의 2010년 기준 4.3%나 말레이시아의 2011년 3.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1]. 특히 대학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0년 기준 11.1%로 보고되어 특히 심각한 수준 이었다[2]. 실제 도박 상담센터 정규 치료에 등록된 내담자의 연령대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3]. 한편 남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남녀 대학생의 병리적 도박 유병률은 남자가 5~9%, 여자가 1~2%로 남자 대학생이 높은 편이다[4]. 대학생은 기성세대에 비해 인터넷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으므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참여 가능성이 높고, 도박을 놀이의 일종이나 일회성 스트레스 해소용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하여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중독이 된 뒤에도 재활이나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소자가 있다[5].

스포츠토토의 공식 명칭은 체육진흥투표권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체육단체 및 각종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발행되었다[6]. 스포츠토토는 여가와 오락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도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은 초기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락으로 즐기다가 점점 베팅 액수와 빈도를 높여서 불법적 스포츠 도박 구매 또는 중독에 이를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7]. 스포츠베팅 산업에 있어서 2015년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는 21조 8000억 원으로 합법적 스포츠토토의 3조 4000억 원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8]. 한편 2014년 발표 자료에 따른 경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전체 가입자 중 대학생의 비율은 34%로 가장 높고, 스포츠토토 구매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도박중독 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9]. 스포츠토토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나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혹과 권유로 인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영역으로 빠져들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의 성격은 건전한 우연 놀이와 도박 사이에 위치하며 언제나 불법 도박으로 빠질 위험성이 내재

되어 있으며, 스포츠를 좋아하는 순진한 대학생들은 쉽게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일단 중독되면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초래하며, 실직, 개인파산, 우울, 자살 등의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10]. 대학생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문의 전문성과 인격의 윤리성을 다져가는 시기임에도, 자칫 도박으로 인해 가치관의 훼손이나 낙오자로 남겨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도박중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설사 중독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 문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박 중독 폐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1]. 도박을 주제로 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면, 도박에 빠져든 계기 또는 도박의 잘못된 신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12-15], 스포츠토토 및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연구 등이 있다[16-18]. 최근 질적 연구로 스포츠토토를 선택하는 이유와 경험적 의미를 탐색한 사례 연구가 발표되었으나[19], 아직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토토 도박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와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겪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경험을 파악하여 대학생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워 실무에 적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도박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남자 대학생 도박중독의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질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겪게 된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인 연구방법 중 Colaizzi (1978)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도박중독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대상자가 경험

한 주관적 느낌이나 지각 및 반응 등을 의미 있게 해석한다[20]. 그러므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편견 없이 기술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괄호 치기(epoché) 함으로써 판단 중지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도박 문제로 인해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도박중독 상담 센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남자 대학생으로 Table 1과 같았다. 도박 중독 관련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 연구 목적과 의도를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최종 8명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도박 시작 시기는 17~20세였으며, 도박 기간은 2년에서 6년 사이로 평균 4.25년으로 모두 남자 대학생으로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le students (n=8)

Participants	Age	Gambling period	Beginning of the first gambling
1	24	5 years	Freshman in college
2	24	4 years	1st grade in high school
3	23	3 years	Freshman in college
4	23	2 years	2nd grade in college
5	28	6 years	Freshman in college
6	26	5 years	3rd grade in college
7	22	4 years	3rd grade in high school
8	20	5 years	2nd grade in high school

## 2.3 자료분석

연구에서는 대학생 도박 중독 경험자의 경험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 각자 한 명씩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한 인터뷰는 2017년 12월~2018년 2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장소는 인터뷰가 자유롭고, 집중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대학교 교내 사무실을 이용하여,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도박 중독자로서의 경험은 어떠한가?'로 시작하였다. 여섯 명의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인터뷰를 유지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은 도박중독을 경험한 국내 · 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자료가 포화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이 반복 될 때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 분석 방법의 하나인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Colaizzi 방법의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는다. 둘째,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와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한다. 넷째,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낸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 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여섯째, 주제를 의미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하게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참여자의 기술에서 추출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이며 추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다. 이후 이를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해 나감으로써 경험의 본질 구조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이를 연구 참여자의 입을 통해 표현된 언어를 빌어 기술하였다.

## 2.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NSUIRB-20170601)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동기, 목적, 방법, 녹음 등의 연구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상세히 알렸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확실한 이후 연구 참여자에 관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2.5 연구의 질 확보 추가

본 연구에서는 원시자료 분석 시,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가능성(auditability),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의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21].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를 선정할 때 도박 경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솔직하게 생생한 체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면담뿐만 아니라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 연구자 등 동료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 중 2명의 지원을 받아 연구의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참여자 검증(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도박중독의 특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감사 가능성 확립을 위해 Colaizzi가 제시한 연구 방법을 충실히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확인 가능성은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며 연구과정과 결과에 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이해를 괄호 치기 하여 이를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인식하고 이로부터 중립성을 갖도록 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사실적 가치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3회 이상 질적 연구학회 등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연구과정과 결과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 가능성이 확립되었을 때 확인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립하도록 하여 확인 가능성을 확립하였다.

Table 2. Categories and bundle of themes

Categories	subject cluster	subject
Like the wind that rushes to the sea	A touch of temptation	A friend's suggestion Internet advertising Temptation of money
	Be caught in a bait of thrill	Fun and excitement Favorite sports The taste of money
	Frustration coming back as a boomerang	Hung-Chung Mang-cheng Minus Recurrent pain
Tears of remorse	Crumbling moments	Headache Roller coaster A shipwreck, Collapse A sleepless night Dull feeling, Feeling of loss
	A flood of regrets	Regret Resentment Out of control
	A runaway calf	Anxiety No anger control
	A succession of illusions	In one shot Fantasy
A locked down life	A tight tug-of-war	Ambivalence Restriction Think of lost money
	Broken daily life	Addiction A messed-up school life
	A swamp of despair	Lie Drowning
	A wrong conviction	Fear Trust
On a dream day	Hit the bottom	Guilty feelings The bottom of life A fight with gambling
	Being aware of reality	Realiz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education
	Reaching out and asking for help	Open consultation Mind control

### 3. 연구결과

#### 3.1 대학생 도박 중독자 경험의 구성요소

도박 중독자 대학생의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주제와 14개의 하부 주제로 Table 2와 같이 도출되었다.

##### 1) 제1주제: 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스포츠토트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친구의 권유와 인터넷 광고 또는 SNS 광고를 통해서였다.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배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처음에는 적은 액수로 시작하기에 큰 부담감이 없다는 생각으로 쉽게 시작하게 된다. 일단 시작된 스포츠토트는 스릴감 넘치는 재미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검은돈의 유혹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도박의 소용돌이 안에 갇힌 삶을 경험하게 하면서 부메랑처럼 반복해 돌아오는 좌절을 맛보게 했다.

##### 가. 유혹의 손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도박은 강력한 족쇄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가족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를 당할 만큼 파괴적이고, 눈을 떠도 깨지 않는 꿈같은 연쇄적인 악몽이 지배하였다. 그러한 도박 중독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신기하게도 참여자들의 절친한 친구를 통해 유혹이 왔다는 것이다. 친구나 지인 추천을 통해 문자가 날라 오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광고가 유혹의 손길이 되었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거 같이 걸어보라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게 재미있던 말이죠 친구가 돈을 따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하게 돼요(참여자 2)*

*처음에 주변 친구 추천을 통해서 토트 사이트를 들어가고 페이스북 광고 댓글 알바, 스팸문자, 인터넷 방송.. 추천인 아이디로 들어가면 추천인에게 충전이 되니까 그걸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참여자 1)*

##### 나. 스릴의 미끼에 걸리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학생들

이다. ‘스포츠토트’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 젖어들다가 결국에는 폭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한다. 재미와 함께 돈까지 따게 되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결국 재미와 돈을 안겨준 도박의 미끼는 돈을 잃고 울게 되는 상황과 굶주림을 경험해도 스스로 미끼를 뱉어 낼 수가 없다.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걸기만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힘들잖아요.. 이걸 5분 안에 5만 원 벌게 해 주는데 알바는 8시간씩 막 해야 나오잖아요. (참여자 2)*

#####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좌절감

연구 참여자들은 쉽게 돈을 벌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돌아보면 마이너스였던 경험이 공통적이다. 밀물처럼 들어오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다. 때로는 가족, 친구, 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먹튀 사이트에 당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생활까지 엉망이 되는 좌절의 순간들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돈을 따지를 못하니까 자꾸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 돈을 훔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밥값이 바뀌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집안에만 박혀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2) 제2주제: 회한으로 흐르는 눈물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도박 문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허감과 상실감에서 오는 의식적인 후회와 회의감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번에는... 한 번만 더...”라는 동의어를 반복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자리를 맴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박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 이는 의지라기보다는 “나는 망할 리가 없다”는, 막연한 믿음이고 결국 “이건 잘못되었다”는 막바지에 갖는 의식적인 후회감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예외 없이 갖는 공통된 고백이다.

### 가. 무너지는 순간들

연구 참여자들은 에너지의 고갈과 역행으로 학업에 소홀해지고,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린다. 이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체감하면서도 롤러코스터처럼 탈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는 합리화로 자신을 무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고 하는 그릇된 선택을 한다. 도박을 위해 대출받고 사채 쓰고 스스로 미친놈이라고 멍청한 짓이라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무너져 가는지를 철저히 경험하며 빠져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진짜 뻥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잃잖아요 두통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머리가 진짜 아파요 학교 앞에서 술도 많이 마셔요 진짜 월, 화, 수, 목, 금 다 먹어요 이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데..(참여자 3)

거짓말도 하고, 만약에 한 번 걸게 되면 그 경기를 계속 보게 돼요 다른 일에 집중이 안돼요 한 5분마다 계속.. 핸드폰에 라이브 스코어가 있거든요 시험기간에는 특히 공부도 안 되고(참여자 5)

### 나. 밀려오는 후회

연구 참여자들은 아낌없이 돈을 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허탈감과 함께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한방에 번 돈이기에 돈의 가치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돈을 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질책과 거절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후회감이 밀려오기 시작함을 경험한다.

주말 알바여서 얼마 받지도 않아요 한 30만 원? 한 달 동안 일한 거를 하루 만에 다 날린 거예요근데도 돈 생기면 또 하고. 돈 잃었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해도 돈이 눈앞에 있으면 또 바로 오늘 어디에 걸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4)

### 다. 고삐 풀린 망아지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통제 불능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되면서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한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돈도 궁핍해지고, 학업도 집중력 저하로 기초부터 흔들려 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통제력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자신을 경험한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갑과 카드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도 느낀다.

뭔가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뭔가 잃으면 잃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요 동생한테 화내고 물건 던지고(참여자 2)

부산 경찰서에서 훈방 처리됐어요.. 걸리고 안 걸린 차이예요 사채로 대출받았던 돈이 있으니까 씹씹이가 커서 재미로 도박도 하고 그냥 좀 멍청하게 썼죠 돈을..(참여자 8)

### 라. 착각의 연속

연구 참여자들은 초반에 났던 경험을 통해 환상을 갖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도박으로 쉽게 탄 돈으로 인해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이 돈 같아 보이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돈 버는 능력이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빠르게 열심히 해가지고 벌은 돈이 50-60만 원인데, 그건 내가 한 큐에 거는 돈 정도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은 돈 같아 보이지도 않고 한 큐에 잘하면 천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참여자 5)

### 3) 제3주제: 수면 아래로 잠긴 삶

도박을 하는 자신과 마주 대할 때 부모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갖는 가장 주된 감정은 죄책감이었다. 이러한 죄책감은 역으로 그 상황에 몸 담게 되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들은 도박을 한 자신의 잘못된 명백한데 자신의 굴레에 갇히게 되어 중독 상태로까지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 가. 팽팽한 줄다리기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으로 궁핍함을 느끼면서도 친구들이 빌려주고 사주는 것을 얻어먹으며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도박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삶을 영위한다. 잃어도 본전이라는 무모한 생각과 부모님께 죄송하면서도 부족한 용돈도 채우고 잃은 돈도 메워야 한다는 끊을 수 없는 매력으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삶이 이들을 도박으로 이끈다.

어차피 불법으로 딴 돈이라 막 썼는데, 잃으면 제 돈 같거든요 수중에 있던 돈을 잃으면 다시 금액을 만들어야겠다는 충동감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잃다가 1년 후에 제 통장이 0원이 된 거죠.(참여자 3)

#### 나. 깨어진 일상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을 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일상생활이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수업도 일도 뒷전이고 생각과 에너지가 온통 도박에 휩싸여 있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불안한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애써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도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는 거죠 미술 학원도 안 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수업시간에 자고 뒤에 앉아서 다른 거 하고 이런 내가 일상생활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도박을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혀가면서.(참여자 2)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한 9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지금 납입 중이에요 계속...(참여자 8)

#### 다. 절망의 늪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도박에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과 다시 금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공존할 때 이들은 이를 헤쳐 나가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애써 무시한다. 어느 날 문득 도박의 늪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지만, 발을 빼려 하면 더 깊이 도박의 현장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을 하다 보면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계속 거짓말하면서 후배 뭐 사주느라 돈 썼다 오늘 책 사는데 10만원 원치 샀으면 20만 원 원치 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리저리 돌리면서

돈이 되게 막 부족해요.(참여자 4)

이제 제가 미친 거 같아요. 완전 도박이죠 2분의 1이 확률이 진짜 최고의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애들 이랑 또다시 빠졌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땀어요 항상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었는데. 결국엔 다 잃게 돼요. 잃고 나면 본전 생각나고 그렇죠.(참여자 1)

#### 라. 잘못된 확신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명품 구매와 호화로운 생활을 부러워하며,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누리는 삶을 동경한다. 해볼 만하다는 어긋난 생각이 사실 사이트로 까지 자신을 이끌어 삶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삶은 위태롭게 좌지우지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는 확신으로까지 번져가는 삶을 경험한다.

돈맛을 알아버려서.. 카드에 이 금액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서. 옷도 비싼 거 100만 원 짜리 사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제 돈 같은 거예요 딴 건 정말 많은데 고작 100만 원을 제가 감당을 못 한 거예요.(참여자 3)

#### 4) 제4주제: 꿈을 꾸는 날엔

도박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욕심과 한탕주의가 도박 중독자로 이끈 것만 같다고 진술한다.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일상의 틀이 깨지면서 바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도박을 접하게 된 과정을 되짚어 보며 현 상황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발견한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된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다.

#### 가. 바닥 치기

몸이 부서져라 아프게 번 돈을 하수구에 버린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육하는 순간의 감정에 공부도 놔 버리고 살아온 삶, 명절에도 혼자만 즐겁지 않았던 경험을 고백한다.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코너에 몰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

세뱃돈을 한 30만 원을 받은 날에 바로 25만 원을 잃었어요 그때 진짜 와.. 어떻게 보면 하수구에 버린 셈이

같아요. 그게 너무 죄책감이 너무 컸고 명절인데도 혼자 즐겁지도 않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참여자 6)

#### 나.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

연구 참여자들은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도박의 폐단을 자각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일부러 바쁘게 살기도 한다. 힘겨운 도박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들은 빠져들기보다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아직 안 한 사람은 시작을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걸요.(참여자 4)

통장을 뺐는데 제 통장이 보이시퍼싱 통장으로 이용돼서 검찰 조사받고 조사 후에 고의성이 없어서 불기소유예 받고. 대출이 더 어려워져야 될 거 같고... 출처를 한두 달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참여자 8)

#### 다. 손 내밀어 도움 청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으로 인한 상실감을 맛보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아프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한다. 교육이나 일대일의 개방적인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아서라도 단도박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표출된다.

전문적인 일대일 상담을 한다 던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는 그런 말보다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참여자 6)

### 3.2. 도박 중독자 대학생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스포츠도도 도박 중독 경험자들의 경험을 아우르는 범주는 “친구를 통해 헛된 꿈을 부여잡고 허공을 맴돌다가 빈껍데기가 되어 현실의 삶으로 빠져나오는 체험의 본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빠져 들어가고 빠져 나오는 주체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한 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연결된 가족과 친구, 자신에게 조차 분노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망스러워하는 것이다. 이

들은 도박으로 인한 수혜자인 것 같지만, 피해자라는 이중 신분을 스스로 갖는다. 이들은 다양한 고통의 경험 속에서 도박중독이라는 삶의 무게와 자신의 명예를 잃어지고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감으로 하루의 삶을 힘겹게 이어간다.

##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포츠도도 도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 대학생들로 바람처럼 언제 불어왔는지 모를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쓰라린 경험과 함께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일상의 파괴와 함께 절망감, 죄책감, 인지 오류 등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면 아래 잠겨 있음을 인식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다.

참여자 대부분은 친구들을 통해서 스포츠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재미와 스릴을 즐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경험이 선행연구의 도박 동기와 일맥상통하였다[12,19]. 또한 스포츠도도를 통한 도박은 합법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광고나 SNS를 통한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반복적인 사이트 연결 시도가 참여자들에게 떨쳐 버릴 수 없는 유혹의 손길로 작용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스포츠도도는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성인이기 때문에 사행성 도박에 합법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도박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22,23].

도박 환상, 본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과 돈을 딸 것 같다는 막역한 기대감을 가지고[12] 시작한 도박은 스릴과 재미를 가져다준다는 잘못된 믿음과 비합리적 도박 신념을 갖게 만든다[13]. 도박자에게 도박은 삶의 권태도 불안도 없게 만드는 생활의 윤희유이고 강력한 마취제라는 유혹의 손길이 첫 발을 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14]. 도박에게 승리만 있을 수 없음에도 손실의 경험은 기억에도 없고 오직 승리의 체험만을 중심 현상으로 두고 극대화시키고 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아직 도박 초보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이 본 연구에서 경험하는 도박 중독의 문제점은 일반 도박에서 나타나는 후회, 절망, 원망과 자책, 통제 불능, 양가감정, 잘못된 신념 등의 경험이 거의 동일하게 드러났다



[5,13,15,22]. 한편 참여자들은 대학생 신분으로 도박 기간이 평균적으로 짧고, 도박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단도박의 의지를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일부 참여자들의 의지는 자기 통제능력을 상실한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의 개입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결과가 된다.

도박은 달콤함만을 주지는 않는다. 참여자들이 초기에 가지는 도박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여러 번의 지속적인 손실을 경험한 후 절망감을 체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5]. 일단 시작된 도박은 흥분을 일으키는 재미로 인해 한 번 문 미끼를 스스로는 내뱉을 수 없게 된다.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후회와 자책의 시간으로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뿐만 아니라, 송진아(2011)[15]의 연구에서도 도박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되돌이표로 반복되는 부메랑 같은 일상이 잘 드러나 있다. 결국 도박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5,12-14,22,24].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이기에 도박의 폐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대출과 사채로 얻게 된 빚을 갚기 위해 알바를 놓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께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카드나 지갑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도 느낀다. 이런 과정 중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망아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대학생이기에 빠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중단과 우울,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여겨진다[24]. 그러므로 학생들을 위한 도박 예방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도박을 통해 절망을 경험한다. 도박으로 인해 일상이 망가져도 본전에 대한 생각과 언젠가는 도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은 도박을 통해서 정상성을 회복하고 일상 세계로 복귀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생기는 불안과 절망을 편한 구속으로 받아들인다[12,15]. 부모님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고, 일상의 삶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도박은 대상자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면서 갈등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다. 간헐적인 승리를 위해 계속적인 손실의 구속을 감수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도박이 절망감을 준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도박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식은 다시 도박이었다[15]. 이렇듯 도박은 수면 아래 몸을 잠기게 함으로써 스스로 헤엄쳐나오기 힘든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물에 잠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까이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차적 도움 제공자는 가족이라고 여겨진다. 그러기에 도박 치료프로그램에 가족의 대처방식을 교육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의 도박 중독은 비문제성 도박 64.8%, 저위험 도박 20.1%, 중위험 도박과 문제성 도박이 15.23% 순으로 아직은 중위험이나 문제성 도박 보다는 비문제성 도박의 비율이 높기에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다[23]. 도박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의지력을 발휘하고, 도박 유혹을 자르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수렁에서 자발적으로 빠져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25,2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바닥을 치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난 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스스로 도박중독예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대학생의 도박 경험은 그리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배움의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그들의 삶 전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포츠도도 도박 경험은 절망의 늪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도도를 중심으로 도박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의 도박 동기와 접근성,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좁히고, 대학생이 주로 하는 스포츠도도를 중심으로 도박 경험을 분석하였기에 대학생 도박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 도박 중독자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성인기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삶 가운데 재미와 흥미만을 추구하며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젊은 청년들에게 국가적, 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의 체계를 구축하고

개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잘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스포츠토도 도박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대학생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상담센터에 찾아온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경험의 범주는 4개로 **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 유혹의 손길, 스틸의 미끼에 걸리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좌절감; **회한으로 흐르는 눈물**: 무너지는 순간들, 밀려오는 후회, 고삐 풀린 망아지, 착각의 연속; **수면 아래로 잠긴 삶**: 팽팽한 줄다리기, 깨어진 일상, 절망의 늪, 잘못된 확신, **꿈을 꾸는 날엔**: 바닥 치기,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 손 내밀어 도움 청하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 경험도 일반 도박자들과 같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 대학생들의 특성을 이용한 도박이기에 접근성이 쉽고, 흥미 유발의 촉진적 특이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직은 도박 기간이 짧고 경제적 자금 조달의 한계점으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빠르다고 본다. 그렇기에 도박 중단을 위한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한 중재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이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도박의 중독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일 대학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또한 도박을 하는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가 대부분으로 신뢰성 확보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스포츠토도 중독 대상자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식과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중독 수준별 연구를 통해 도박 중독자의 수준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Gallup Korea Research Institute. (2016). *A survey on actual state of use in gambling industry*. Seoul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ttps://academic.naver.com/openUrl.naver?doc\\_id=187899178&linkType=doclink](https://academic.naver.com/openUrl.naver?doc_id=187899178&linkType=doclink)
- [2] B. S. Kwon & Y. H. Kim. (2011). A Study of gambling addiction and its actual condi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9, 5-28.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082223>
- [3] Rehabilitation Department of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2016). *Effectiveness Evaluation Report of Healing and Rehabilitation Project in 2015*. Seoul :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 [4] R. Stinchfield, W. Hanson, & D. Olson. (2006).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mong college students.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13, 63-72. DOI : 10.1002/ss.196
- [5] H. J. Shin. (2016).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gambling addiction and policy responses of late adolescence undergraduate.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6(1), 19-37.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424>
- [6]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Name of Web Site. <http://www.kspo.or.kr/>
- [7] S. B. Nam & S. J. Lee.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indfulness consumption on consum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ddictive buying of sports toto.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5(3), 809-829.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1991612>
- [8] C. K. Kim. (2016). *Illegal Sports Toto, 22 trillion won...six times of the 'Legality'*, Hankyoreh newspaper. Name of Web Site.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63994.html#csidx472ebbaba577bc38e52709674c4a2c6](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63994.html#csidx472ebbaba577bc38e52709674c4a2c6)
- [9] S. K. Cho, J. S. Han, A. R. Song, D. M. Yang, H. J. Koh, H. B. Kim, S. M. Son & J. Y. Han. (2014). A study on the risk of gambling addiction on experience of sport toto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materials), 1, 461-461. <http://www.dbpia.co.kr.proxy.nsu.ac.kr:8010/Journal/ArticleDetail/NODE06379445>
- [10] H. J. Lee. (2010). Discussion on gambling of Sport Toto, Philosophy of Mov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18(2), 43-55.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82397391>
- [11] D. Korn & H. Shaffer. (1999). Gambling and the health of the public: Adopting a public health perspectiv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5(4), 289-365. DOI : 10.1023/A:1023005115932
- [12] K. H. Lee, S. L. Do, J. N. Kim & S. M. Lee. (2011). A

- qualitative study of the process of gambling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1), 189-213.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368916>
- [13] J. H. Kang & H. K. Lee. (2016). A study on the gambling abstinences' reconstruction process of existence.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0(3), 5-32.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160240>
- [14] J. A. Song & Y. G. Kim. (2014). The research on the lived experiences of gambling addicts who stay near the casino-focusing on the experienced relationship, corporeality, time.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8(1), 125-151.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450581>
- [15] J. A. Song.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gambling addiction - including a concurrent phenomen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3), 213-237.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38996>
- [16] J. H. Frey. (1984). Gambling and college sports: views of coaches and athletic directors. *Sociology of Sport Journal*, 1(1), 36-45.  
 DOI : 10.1123/ssj.1.1.36
- [17] R. Martin, S. Nelson, A. Gallucci, R. J. Martin, S. E. Nelson, & A. R. Gallucci. (2016). Game on: past year gambling, gambling-related problems, and fantasy sports gambling among college athletes and non-athlet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32(2), 567-579.  
 DOI : 10.1007/s10899-015-9561-y
- [18] K. N. Kwon & J. R. Lee. (2017). The actual conditions and task on illegal sport gambling of the Korean school elite sports athlet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30(2), 1-28.  
<http://www.ksss.org/>
- [19] J. L. Lee & J. Y. Hong. (2017). The reasons behind selecting illegal Sports-ToTo, and exploring the empirical meanings. *Korean Journal of Sport Studies*, 56(5), 131-145.  
<http://www.kahperd.or.kr>
- [20]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n Valle R & King M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21] M. Sandelowski.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2), 27-37.  
 DOI : 10.1097/00012272-198604000-00005
- [22] S. H. Yang. (2017).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gambling and drinking problem. *Stress*, 25(4), 306-316.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88832>
- [23] H. J. Shin. (2015). A study on the gambling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1(2), 55-68.  
<http://www.earticle.net.ssl.proxy.nsu.ac.kr:8010/Article/A328489>
- [24] K. M. Lee, S. K. Kang & P. K. Thak. (2015).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tudy of relapse experience of people with gambling abstinence.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3(2), 5-31.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404483>
- [25] J. H. Kang & Y. Choi. (201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gambling addicts' suicidal attempts and recovery experiences. *Journal of Wellness*, 13(3), 197-210.  
<http://www.earticle.net.ssl.proxy.nsu.ac.kr:8010/Article/A344368>
- [26] M. S. Yoon & W. S. Chae. (2010). Recovering Process from Gambling Addi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3), 271-297.  
<http://www.kasw.org>

최 정 현(Jung Hyun Choi) [정 회원]



- 1999년 3월 : 동경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2년 8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지역사회 간호, 보건교육,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
- E-Mail : jhc@nsu.ac.kr

양 영 미(Yang Young Mi) [정 회원]



- 2011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임상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노인간호
- E-Mail : debora69@bu.ac.kr

김 성 의(Seong- Ui Kim) [정 회원]



- 2009년 8월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8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지역사회 간호, 호스피스 간호, 알코올중독 회복 교육
- E-Mail : agape2816@hanmail.net